

전남·일신방직, 내달 개발협상 시작

역사성 보존·개발이익 해법 모색 관심 집중 이용섭 시장 “공공성과 사회성 조화 이뤄야”

광주 근대산업 유산인 옛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부지 개발 협상이 다음달 본격화된다. 관련 건물들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도 개발 이익을 낼 수 있는 해법 모색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옛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개발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문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광주시의 계획안을 만들어 다음 달 중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공장이 들어선 부지 일대는 공업 용지에서 상업·주거 용지로 변경하고 땅값 상승액의 일정 부분을 공공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개발이 예상된다.

토지 소유주 측은 지난 4월 개발 계획

안을 제출했으며 광주시 태스크포스는 6차례 회의와 용역 등으로 주요 시설 보존,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태스크포스는 보존 여부 등을 결정할 시설물 평가를 위해 최근 역사, 경관, 활용 가치 등 5개 주제별로 4개씩, 모두 20개 세부 기준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은 역사 문화 자산으로 보존하고 이에 따라 개인(토지 소유주)이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은 수익 사업으로 보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상복합 아파트 위주 개발은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신념이다”며 “어렵기는 하겠지만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을 끌어올리는 형태의 수익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방직 공장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로 시민에게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다.

전방과 일신방직은 지난해 7월 부지를 부동산 개발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발이 임박해지자 시민사회에서는 시설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임기 만료를 앞둔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김대중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임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시장은 “여러 안테나를 세우고 보는데 사람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자동차 분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GGM의 미래는 노사 상생에 달린 만큼 노동계를 포용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자격 요건을 거론했다.

특히 “GGM이 위탁생산을 하니 위탁업체인 현대차와도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분야여야 한다”며 “거기에 맞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박광태 초대 대표는 오는 1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을 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GGM은 오는 15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성과물인 현대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양산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리더십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적임자를 찾을 방침이다.

이날 마감하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공모도 ‘인물난’이 예상된다.

이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확인하니 지원자가 1명밖에 없었다”며 “널리 인재를 구해 쓸 수 있도록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응모하는 분위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에 남승진씨

전문성·오랜 실무경험 갖춰

광주시는 6일 새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제3대 대표이사로 남승진 전 동아보건대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남 대표이사는 충북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일본 국립치바대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아보건대학교 건축과 교수,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장, 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북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광주시공동체시민회의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총괄코디네이터, 공공디자인심의위원 등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전문성과 능력, 오랜 실무경험 등을



갖췄다. 광주시는 안평환 전 대표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센터의 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공모를 통해 5명의 후보 중 2명을 이사회에 추천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남 대표이사를 최종 선임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지난 4년간 축적된 센터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롭게 혁신하고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로 도약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녹색축산육성기금 217억 지원

도, 시설·운영자금 1% 저리... 청년농업인 우선 혜택

전남도는 현대화한 축산시설 확충과 청년 축산농업인 양성을 위해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71호를 확정하고, 시설·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하는데 217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시설자금은 축사시설 신규 설치,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등에 50호 190억 원, 운영자금은 원료육 구입,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깔짚·미생물 구입 등에 21호 27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구례 한우 농가의 송아지 입식과 시설복구를 위해 9호 10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신규 축산 청년 창업농가의 축사 신축에도 10호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전남 미래 축산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은 친환경 실천농가와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법인의 경우 20억 원 이내, 축산물 유통업체는 30억 원 이내다.

운영자금은 농업인·법인의 경우 2억 원 이내, 축산물 유통업체는 3억 원 이내다.

연리 1%로 저리 융자 지원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종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올해부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3년 연장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녹색축산농장 지정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전남도가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실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군과 함께 공동 출연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해 신규공무원들로부터 공무원 선서를 받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시, 신규임용·자치구 전입 인사 단행

현안사업 가속화 기대

광주시는 올해 공채시험 합격자 중 성적 우수자 46명을 신규 임용하고 자치구 공무원 5명에 대한 전입 인사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임용한 신규 공무원은 ▲행정9급 11명 ▲전산9급 8명 ▲사서9급 2명 ▲공공9급 6명 ▲환경9급 2명 ▲시설9급 11명 ▲방재안전9급 1명 ▲운전9급 2명 ▲보건연구사 3명이다. 또, 시로 전입한

자치구 공무원은 ▲공업8급 1명 ▲농업8급 1명 ▲복지8급 1명 ▲식품위생8급 1명 ▲시설8급 1명 등이다. 이번 신규공채와 전입인사를 통해 부서별 결원율을 정원 대비 0.1%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시는 지난달 17일 자치구 공무원 51명을 전입하고, 24일에는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해 보건·간호 등 방역 인력 7명을 조기 배치했다.

시는 젊고 우수한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에 들어옴에 따라 조직에 새로운 에너

지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직 자로서 역량을 발전시키고 기성세대 공무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30세 이하 공무원이 2010년 1.4%에서 2021년 11.9%로 증가한 것을 고려해 ▲멘토-멘티 ▲세대 간 소통 혁신교육 등 세대 간 이해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에 빨리 적응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중화 인사정책관은 “조직 내부의 세대교체와 외부의 시대변화에 발맞춰,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이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시, 결손처분자 체납액 징수

광주시는 결손처분된 체납자가 납세의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납부촉진과 징수를 위해 맞춤형 안내문 발송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징수 절차를 유보하는 처분이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 또는 10년의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 재산 발견 시 압류 통지 등의 징수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된다.

그동안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별도의 통지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체납액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 체납자는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해 납부를 태만하거나 장기간 경과 후 재산 발견 시 갑작스럽고 압류 통지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손처분이 체납액 납부를 면제받는 ‘납세 면죄부’가 아님을 알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체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지난달 결손처분된 체납자 3,28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후속 조치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맞춤형 행정제재를 안내하고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행정제재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문예회관장 ‘개방형 직위’ 유지해야”

지역 문화단체 제차 논평

광주민예총,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지역문화계와 예술인들은 6일 광주시의 ‘문예회관장 내년 상반기 지정 추진’ 입장에 대한 논평을 내고 “광주시의 입장은 진일보한 조치이나 진정성 있는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가 주장하고 있는 당면 현안은 새삼스러운 일이거나 존각을 다루는 사안도 아니며, 업무 공백 또

한 관리 감독의 주체인 광주시가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된다”며 “시의 주장대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배치되어도 업무 기간이 짧아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장고 끝에 약속을 두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시가 문화예술회관 관장 ‘개방형 직위’를 유지하고, 조속한 후속 조치로 광주시 문화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지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호남지사 062-417-4717 / 010-4675-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끝을 간질여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씹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